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10621226-0180

# 光州日報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찾아드립니다.**  
 대표강사 김현희 강명환  
 광주지사 0621228-3222

## 낙선 고현석 곡성군수-조형래 당선자 아·름·다·운·동·행

고현석(63) 곡성군수와 조형래(56) 차기 곡성군수 당선자. 3차례나 군수선거에서 맞선대를 한 라이벌이자, 5·31 지방선거에서는 78표 차로 승패가 갈리는 피말리는 승부를 벌인 당사자들이다.

다시 볼 것 같지 않은 약연(?)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선거 때의 앙금도 말끔히 씻었다.

낙선한 현직 군수와 차기 군수 당선자인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함께 중앙부처를 돌며 낙후된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겼다. 지역 행사장에도 나란히 참석, 선거로 피폐해진 지역 분위기를 화합으로 바로잡아가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맞아 일부 지역에서 전임 단체장 추진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살생부(殺生簿)가 나오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같은 사례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화합과 지역안정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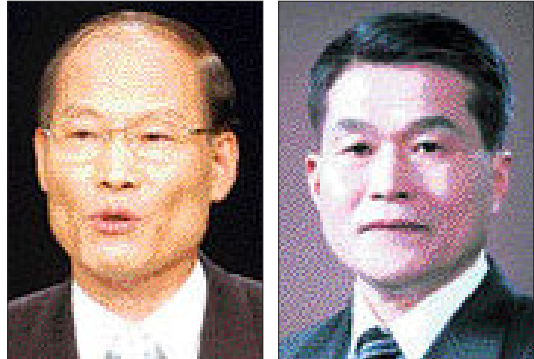
두 사람은 지난 14일 산업자원부 주관 '2006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심사가 진행된 서울 교육문화회관과 '평생학습도시' 심사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하기 위해 광주공항에서 함께 비행기를 탔다. 단체장 교체기에 주관 부처들이 계속사업에 대한 차기 단체장의 의지를 중시하는 터라 고 군수는 조 당선자에게 의중을 물었고 조 당선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의기투합한 것이다.

두 사람은 산자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전달했고 그 결과 산자부 심사에 응모한 곡성군의 '천천연구센터 등 생물적 방제산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 향후 3년동안 350억원을 들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고 군수와 조 당선자는 이날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열린 전남농산물전시회 개막식에도 나란히 참석, 곡성농산물 전시관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은 27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어졌다. 고 군수와 조 당선자는 이날 곡성출신 행자부 공무원 및 기획예산처 간부들과 오찬·만찬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열악한 군세를 감안해 내가 떠나더라도 더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달라"고 간곡히



고현석 군수 조형래 당선자

요청했다.

이에 기획예산처 간부들은 "낙선자와 당선자가 함께 찾은 것은 드문 사례로 보기에 너무 좋다"며 "앞으로도 적극 돕겠다"고 호응했다.

고 군수와 조 당선자는 지난 8년동안 세 차례의 군수 선거에서 연거푸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경쟁 상대'라는 약연으로 얽혀있다.

지난 1995년 초대 민선 군수 선거전에서 민주당 돌풍을 잠재우고 무소속으로 당선돼 관심을 모았던 조 당선자는 제2·3회 지방선거에서는 고 군수에게 2천~3천여표 차로 잇따라 패했으나 이번 제4회 선거에서 78표차로 신승(幸勝)했다. 광주·전남 단체장 선거 중 최고 표차였다.

고 군수는 "그동안 경쟁 과정에서 서로 '전임자'이면서 '후임자'인 관계가 됐다"며 "단체장 교체기에 자칫하면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데 군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하게 돼 저자 마음이 놓인다"고 퇴임을 앞둔 소회를 피력했다.

군정 인수작업이 한창인 조 당선자도 "초대 군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동안 솔직히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이번 '동행'을 통해 우의가 더욱 깊어졌다"며 "전임 군수이자 지역 선배인 고 군수에 대한 철저한 예우를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같은 행보에 군정 안팎에서도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소속 정당도 다르고 경쟁 관계인 두 사람이 오로지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모습은 지역화합의 모델로 주민들에게도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흐트렷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 "아유, 우리 아들...엄마, 나 막내야" 28년만에 상봉



28일 오후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28년만에 모자 상봉을 한 최계열씨가 아들 김영남씨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다. 김씨는 고교 1학년 1978년 8월 전북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관련기사 3면> (사진공동취재단)

## 정몽구 회장 보석 석방

법원이 회삐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68)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정몽구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으로 구속수감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보증금 10억원에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1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김동진 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기소가 마무리됐을 뿐 아니라 회사 관계자 조사나 관련자료 압수수색 등이 완료돼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30년 광주·전남 인구 54만명 감소

통계청 발표...전남 인구 1명당 0.8명 부양

농어촌 피폐화와 출산 기피 현상, 경제활동인구의 외지 유출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의 인구의 구조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유년·노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져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06~2030년 광주·전남 장래인구'에 따르면 2030년 광주·전남 인구는 총 272만명으로 2006년 현재 326만명보다 16.6%(54만명)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시 인구는 2006년 144만명에서 2030년 147만명으로 늘어나지만 25년동안 불과 2%(3만명) 정도에 불

과해 사실상 인구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전남의 인구감소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인구는 2006년 182만명에서 2030년 125만명으로 31%(57만명)나 줄어들게 된다. 또 2019년께 전남 인구는 148만1천명까지 떨어지면서 광주(147만3천명)에 추월당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부양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경우 부양비율이 2006년 55.8%에서 2030년 79.8%까지 치솟게 된다. 전남 인구 1명이 0.8명씩을 '먹여 살려야'하는 셈이다.

▲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의 비율을 뜻한다. 부양비율이 80%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자신은 물론, 유년·노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 0.8명의 부양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시의 부양비율도 2006년 40.5%에서 2030년 51.4%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양비율 가운데 노인부양비율은 10.4%에서 32.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부양비율 급등은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인구 불균형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학교급식 전면 감사

감사원은 28일 CJ푸드시스템 급식사고를 계기로 유사사태 재발방지 및 원인규명 차원에서 전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감사반원을 편성, 이날부터 감사에 들어가 일단 7월까지 감사를 마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월드컵 스코어 보드				
브라질	3	16강	0	가나
프랑스	3	강	1	스페인

포항시립대학 50년 역사상 최초로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생원로본관 052-252-4114 ▶ T.052-252-4201-9  
 사제로 믿어주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rysaem.ac.kr  
 ▶ 생원로본관 052-252-1 ▶ T.051-360-5000

30대여성  
**80%** 피부미용 전문가가 추천하는 피부미용제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딤화이트닝**  
 IOPE